

고쿠타니

구타니야키는 선명한 색감의 문양과 광택이 특징인 도자기입니다. 그 역사는 두 시대로 나뉩니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초기의 구타니야키는 ‘고쿠타니’라고 불립니다. 그 후 약 100년 동안 구타니야키 생산은 중단되었지만, 19세기 초에 부활했습니다. 이후의 구타니야키는 ‘재흥 구타니(사이코쿠타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구타니야키는 17세기 중반, 구타니 마을(현재 이시카와현 남부)에서 자기 제작에 필요한 희귀한 재료인 도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에다 가문의 분가인 다이쇼지번 내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생산하던 곳은 남규슈의 아리타뿐이었고, 게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던 자기 수입도 정세 불안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마에다 가문은 이 발견을 자기 생산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구타니에 가마가 세워진 시기는 160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1630년대부터 유약을 사용해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등 광택 있는 자기를 제작하던 아리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고쿠타니의 우와에쓰케(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도 녹색, 노란색, 보라색, 감청색, 붉은색과 비슷한 배색으로, 현재는 이를 ‘구타니고사이’라고 부릅니다. 무늬 윤곽을 검은색으로 그리고, 두꺼운 유약을 입혀 깊이감 있는 대담한 색감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쿠타니의 특징입니다.

고쿠타니는 현재 크게 2가지 스타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이로에’입니다.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고사이테’라고도 불립니다. 이로에에서는 바탕에 흰색을 약간 남겨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스타일인 ‘아오테’는 빨간색을 제외한 2~3가지 색만을 사용하며, 그릇 표면을 완전히 채우는 디자인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배경은 노란색 바탕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1700년경에 고쿠타니 가마가 폐쇄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고쿠타니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생산규모가 작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당시의 고쿠타니 작품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도예가들이 고쿠타니 양식을 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고쿠타니의 색감과 모티프는 현대 이시카와 도예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습니다.